

태국 2023: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

현 시 내**

국문초록

2023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태국의 총선에서 유력한 승자로 접쳐졌던 프아타이당을 제치고 까오끌라이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총리 선출은 실패한다. 총리선출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약속을 어기고 군부 보수세력과 손을 잡아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렇듯 표심과 민심을 거스르고 탄생한 세타 타워신 정부는 다수의 불안 요소들을 떠안고 출발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했지만, 더딘 회복은 태국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한계가 빈부격차 해소와 인적자원개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타 정부에게 있어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이다.

거듭되는 쿠데타와 정국 혼란으로 국제적 신뢰도를 잃고 심화하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하지만 이를 통해 이전의 외교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그 가운데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태 관계도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3243).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sinac@sogang.ac.kr

주제어: 총선, 탁신 치나왓, 정치의 일상화, 구조적 문제, 고령화 사회, 빈부격차, 사우디아라비아, 한태관계

I. 들어가는 말

2023년 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단연코 5월에 열린 총선이였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청년 진보세력이 주도하는 까오끌라이당이 제1당이 되었고, 유력한 승자였던 프아타이당은 제2당이 되었다. 군부 세력이 주도했던 보수정당들은 간신히 5위권 안에는 들었으나 진보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반도 미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비록 총리 선출 과정과 그 결과는 기존 보수세력의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태국에서의 변화의 물결은 이미 20세기식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 구도를 넘어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만들어 내는 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팬데믹 시기 경제위기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수요 하락이 제조업과 수출업에 초래한 타격과 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해외투자 저하는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켰다. 이러한 외부 타격에 대한 취약성은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이다. 2023년 태국의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빈부격차와 빈곤층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태국 사회 전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들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뿐만이 아니라 중진국들 간의 긴장 관계에서 중도 노선을 걷는 태국식 “대나무 외교”로 대외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미·중 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보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2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의지다. 반면에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만한 사건들로 한 해의 마지막이 #BanKorea로 마무리되었다.

태국의 2023년을 돌아보며 우선 총선 결과를 정리해보고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에 실패한 진보세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주지하다시피 태국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까지 오피니언 리더의 나이가 상당히 어려졌고, 이들은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이다. 이들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태국의 정세를 보면서 동시에 태국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구조적 요소들을 보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호호혜적인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II. 정치

1. 2023년 총선 결과와 분석: 새로운 물결과 예상된 결과

2023년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물결과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직전까지도 다수의 태국인과 태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타이를 위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까오끌라이당(Move Forward Party, “멀리 전진”)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151석을 획득하여 총 141석을 획득한 프아타이당보다 선전했다.

[표1] 2023년 태국 총선 결과

순위	정당	총 의석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총 득표수	의석수	총 득표수
1	까오꼴라이	151	112	9,665,433	39	14,438,851
2	프아타이	141	112	9,340,082	29	10,962,522
3	폼짜이타이	71	68	5,133,441	3	1,138,202
4	팔랑쁘라차랏	40	39	4,186,441	1	537,625
5	루암타이상찰	36	23	3,607,575	13	4,766,408
6	쁘라차띠뻏	25	22	2,278,857	3	925,349
7	찰타이파타나	10	9	585,205	1	192,497
8	쁘라차찰	9	7	334,051	2	602,645
9	타이상타이	6	5	872,893	1	340,178
10	찰파타나꼴라	2	1	297,946	1	212,676
11	프아타이루암팔랑	2	2	94,345	0	67,692
12-18	총 7개 정당	7	0	-	7	-
	총합	500	400		100	

출처: 태국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태국 공영방송 (Thai PBS), 태국 언론사 The Standard 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선거 정국 내내 압도적 제1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프아타이당이 기대했던 의석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태국 정치사상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자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총리 탁신 치나왓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프아타이당과 뿌라우 쩌오차 전 총리와 결별한 뿌라우 윈수완이 이끌고 있던 팔랑쁘라차랏당(Phalang Pracharat Party, “국민의 힘”) 간의 긴밀한 관계가 공개되면서 밀실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Chalermpanupap 2023/02/27). 한때 탁신 치나왓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2006년 탁신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손티 림텅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손티 토

크”라는 팟캐스트에서 2월 3일 탁신과 팔랑쁘라차랏당 당수 뿌라윗 사이의 “비밀 거래”에 대해 폭로한다. 탁신의 막내딸인 패딩탄 치나왓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불거진 프아타이당 내에서의 분열을 지적하며 손티는 탁신의 지지자만 남은 프아타이당은 결국 총리 선출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군부 세력과 결탁할 것이고, 그중 가장 유력한 친탁신 계열 군부 지도자가 뿌라윗 왕수완이라고 했다(Limthongkul 2023/02/03).

둘째로 손티가 지적한 것처럼 프아타이당 내 분열과 불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2010년 레드셔츠 시위를 주도했었던 지도자 짜뚜폰 프롬판은 2023년 1월 20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뿌라윗을 비판하는 만큼 탁신과 프아타이당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짜뚜폰은 탁신이 지속해서 레드셔츠를 배신했으면서도 지금은 태국에 돌아오려 레드셔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러한 탁신과 프아타이당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Prachatai 2023/01/21). 이에 2010년 당시 짜뚜폰과 함께 레드셔츠의 지도자였던 프아타이당의 나타웃 싸이끄아는 압도적 승리의 목표가 탁신의 귀환이 아니며, 군부와 연정을 할 계획도 없음을 밝혔다(The Nation 2023/01/28). 이렇듯 탁신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그의 여동생 잉락 치나왓을 총리로 만드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던 레드셔츠 지도자 세력 내 분열은 프아타이당이 비민주적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되게 했고, 결국 프아타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선거 직전 탁신의 태국 귀환 선언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22년 7월 프아타이당의 “압도적 승리”를 주장하며 태국 귀환을 암시했었던 탁신은 5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74세가 되는 7월 26일 이전에 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밝혔다. 그가

태국으로 귀환하겠다는 것은 곧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이미 탁신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고 있었던 보수세력은 그가 아무리 10년의 징역형을 감수하고 태국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의 귀환에 저항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탁신이 버리고 간 레드셔츠 세력 자체 내에서의 내부 분열로 프아타이당을 등진 이들과 탁신이라는 구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신세대 정치운동가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Bangprapa 2023/07/21; Chalermphanupap 2023/04/03: 3, 7). 이는 분명 총선 직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프아타이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었지만 보수세력이 사법권을 이용해 진보세력 출신의 총리 선출을 막은 것은 “예상” 그대로였다. 201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총 375명의 상·하원 의원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총리 선출이라는 게임의 룰을 돌파하기 위해 피타 림짜른랏은 소수 정당과 상원 모두에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7월 13일에 열린 첫 번째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하원 311표, 상원 13표를 받아 총리 당선에 실패했다. 기다렸다는 듯 2차 투표가 열리기도 전 헌법재판소는 피타의 의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국회는 한번 실패한 피타의 총리후보 지명안을 같은 회기 내에 재심할 수 없다고 아예 7월 19일 2차 투표 자체를 무산시킨다. 그리고 3차 투표일을 무기한 연장시킨다(Wheeler 2023/07/31). 결국 까오끌라이당은 프아타이당에 총리선출권을 넘기게 된다.

2. 총선 이후 내각 구성까지: 탁신의 귀환과 세타 타위신 총리 선출

피타의 총리직 도전이 좌절되고 프아타이당의 제2 총리 후보였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 구성이 발표된 8월 말까지 약 40일 동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은 역시나 전 총리 탁신 치나왓의 귀환이다. 장장 15년간의 자발적 해외망명생활을 접

고 그가 귀국한 시점은 절묘하게도 신내각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다. 2023년 7월 26일 패딩탄 치나왓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탁신이 8월 1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알린다(Duangdee 2023/07/26).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2일 프아타이당은 까오끌라이당과 피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세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하지만 8월 5일 탁신은 직접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의사가 휴식을 권유하여 귀국 일정을 뒤로 미룬다고 발표한다. 8월 7일 프아타이당은 총선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아누틴 찬위라꾼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타이 자존심”)과 연정할 것임을 발표한다(Sirivunnabood and Jatusripitak 2023/08/11). 세타는 선거 직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품짜이타이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프아타이당과 까오끌라이당 모두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었다. 선거기간 내내 보수세력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아누틴과 프아타이당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리직을 쥐고 새로운 내각도 프아타이당과 친탁신세력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Montesano 2023/08/29).

하지만 프아타이당과 아누틴의 연정이 불러올 파장은 모두의 예상은 낀 사건에 의해 가려진다. 연정을 발표하는 그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현 국왕의 둘째 부인의 아들인 와차레손 위왓차라왕이 태국을 깜짝 방문한다. 평범한 시민의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공항에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Head 2023/08/09). 역시 문제는 타이밍이다. 왕자의 깜짝 방문이 이어진 그 일주일 동안 세타는 발 빠르게 보수세력과 소수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왕자가 출국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1일 11개당 연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Wee and Suhartono 2023/08/21). 결국 8월 22일 시행된 3차 투표에서 세타는 하원 330표, 상원 152표를 획득하여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탁신은 방콕에 도착하고 귀국과 동시에 구금된다. 모두가 예상했듯 며칠 뒤 9월 1일 탁신은 왕실의 사면권을 얻어 1년 형으로 감형받게 된다. 그리고 9월 2일 현 국왕은 세타의 신내각 출범을 승인한다. 와차레손 왕자의 깜짝 방문은 왕위 승계 문제에서부터 보수세력과 왕실 세력 간의 연결성까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지만, 왕실에 대한 모든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태국 사회의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논평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타는 신내각을 구성하는 데 군부 세력과의 연정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제1당인 까오끌라이당을 완전히 제외했다. 내각의 반 이상을 프아타이당 소속 정치인에게 내주었고 자신을 총리로 선출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품짜이타이당에게도 섭섭지 않은 자리 배분을 하고, 이누턴에게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직을 주었다. 동시에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농림부장관직을 타마낫 프롬파오에게 준 것이다. 비록 빠라윿은 내각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타마낫이 농림부 장관직에 복직했다는 것은 세타의 새로운 내각이 가진 원초적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신내각의 장관직을 차지한 인물 중 9명이 전 빠라윿 정부 출신이다(Jatusripitak 2023/09/14). 그렇게 태국 정치는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 낸 변화의 기회를 “뻔한” 결과로 덮어버렸다.

3. 2023년 총선 이후 진보세력의 행보와 세타 내각의 과제

2023년 총선에서 새로운 물결과 희망을 만들어 낸 까오끌라이당의 앞으로의 행보와 운명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등장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까오끌라이당의 해체 여부와 앞으로의 피타의 정치적 행보 혹은 미래에 대한 논의다. 까오끌라이당의 전신인 아나콧마이당(Future Forward Party, “새로운 미래”)이 해체된 것처럼 까오끌라이

당 역시 해체되고, 아나콧마이당의 지도자였던 타나톤 쯡롱루앙깃과 빼야붓 생까눅꾼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처럼 피타 역시 정치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Chalermpanupap 2023/05/25). 이미 총선 전부터 피타는 정치인의 언론매체 주식 소유 방지에 대한 고소를 당했고, 까오끌라이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실 모독죄 개정에 대해 똑같은 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Tonsakulrungruang 2023/08/07). 다행히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언론매체 주식 관련 고소는 기각했지만 31일 왕실 모독죄 관련해서는 이 법을 개정을 하려는 모든 노력이 왕실을 전복하려는 것과 같다고 선포를 함으로써 까오끌라이당의 해산 가능성을 높였다(Online Reporters 2024/01/31). 다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2020년 아나콧마이당의 해체가 불러일으킨 파장이다.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포된 가운데 태국의 청년 진보세력은 사법 권력을 이용한 보수세력의 횡포에 거리시위에서부터 온라인으로 밀크티 동맹을 이끌어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던 가운데 왕실 개혁을 요구했다. 이는 이 세대가 얼마나 절박하게 태국의 민주화를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Jory 2023/08/01).

둘째로, 까오끌라이당이 프아타이당과의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얻어낸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총선 직후 총리 선출과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까오끌라이당은 다수의 정당과 연정을 시도했고, 연정 구성을 위해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 개정을 주요 개혁안에서 빼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친군부 성향의 정당과 타협하고, 왕실 모독죄 개정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적은 없다(Watcharasakwej and Tan 2023/08/18).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까오끌라이당이 내각 구성에서 제외된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까오끌라이당에 대한 지지 세력의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본다(Rattanataymee 2023/08/18). 2017년 군부 세력에 의해 구성된 상원

이 가진 총리선출권이 2024년 5월에 만료되면, 흔히 사법쿠데타라고 불리는 법을 활용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향과 과정을 탄압하는 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지만 2023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기는 힘들다 (Alderman 2023/07/18).

마지막으로 까오끌라이당이 대변하는 태국 청년 진보세력의 정치화 성공 여부다. 총선 직전 한국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 태국 쫄라롱꼰대학 학생회장이었던 네띠윳 촛띠팻파이산은 청년세대가 2014년 쿠데타 직후 일어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정치의 일상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총선이 꾸준히 이어져 온 청년 세대들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정치에 반영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서영 2023/05/10). 총선에서의 까오끌라이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청년 세력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촉구하며 사회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고, 정치와 일상의 간극을 좁히려 했던 그들의 노력은 청년 세력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왕실 모독죄 개정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의도적으로 이 공약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징병제 폐지, 결혼 평등법안, 부패 방지법, 주류 독점 방지법안, 탄소배출절감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과 개정안을 내놓아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Johjit 2023/05/18). 역시 이에 대한 호응은 까오끌라이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당은 방콕 33개 지역구 의석 중 32석을 획득하고, 지방의 수도격인 중소 도시 여러 곳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치의 일상화”가 새로운 세력들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2023년 태국은 총선을 무사히 치러냈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렇다고 세타 정부가 맞이할 2024년이 2023년 총선이 만들어낸 과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그를 뒷받침하는 프아타이당의 내분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소수정당들로 구성된 정부가 가진 내재적 불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특히 탁신이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왕실사면권을 받아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손티가 말한 비밀 거래뿐만 아니라, 탁신과 왕실 사이에 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Raymond 2023/09/17). 더불어 11월 30일에는 7월 11일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빠라웃이 추밀원에 임명되면서 새로운 내각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The Nation 2023/11/30).

Ⅲ. 경제

1. 더디지만 다행스러운 회복

동남아시아의 제2 경제 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의 경제회복은 더디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2023년 상반기에 팬데믹 이전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회복했다. 경제회복의 일등 공신은 전년과 비슷하게 관광업과 민간 소비의 활성화였다. 1-3분기 사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총 2천만 명 이상에 달해 팬데믹 이전의 70% 정도 수준으로 회복했다(WBG 2023/06/28: 1).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도 증대되어 2023년 3분기까지 관광으로 인한 총 수입액이 1조 3640억 바트에 이르렀다(NESDC 2023/05/15, 2023/08/21, 2023/11/20). 관광업의 활성화로 서비스업과 관련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되었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안정되면서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졌다. 2023년 내내 민간소비지출은 정부소비지출이나 투자, 수출 분야보다 가장 우호적인 발전을 보여주어 2023년 1분기 5.8%에서 3분기에는 8.1%로 성장한다. 가계소비가 증대된 데에는 정부의 연료비용과 교통비를 보조정책, 그리고 물가상승 지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정책도 한몫했다(WBG 2023/06/01: ii-iii; 2023/06/28: 1).

하지만 2/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한참 떨어져 결국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은 2023년 GDP 성장률을 2.7-3.7%에서 2.5-3.0%로 하향 조정했다.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량이 줄어들고 국내외 투자도 급격히 축소되면서 세계은행도 태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3.6%에서 3.4%로, 2024년 성장률은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Sriring and Thaicharoen 2023/08/21).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자율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2022년 4/4분기 가계부채가 총 GDP의 86.9%에서 2/4분기에는 90.7%로 상승한다(NESDC 2023). 하반기에도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태국에서 쓰는 관광비용은 크게 증대되지 않았다.

2023년 순조로운 출발을 한 태국의 경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2023년 태국의 경제회복을 이끈 것이 관광업과 민간소비지출이었다면, 성장을 둔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과 수출 저하라고 할 수 있다.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미국이 제1 수출국이었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량 둔화와 수출량 축소로 이어졌다(Dollar 2023/06/04; White and Ruehl 2023/10/02). 특히 태국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자제품과 같은 수출지향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서 타격이 직

접적이었다(Yarrow 2023/10/30; BOT 2023/10/31).

태국의 제2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어 상황을 악화시켰다(ADB 2023/09: 2). 중국은 2023년 5%의 GDP 성장률을 기대했지만 소매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량에 머물렀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가계부채 증대는 민간 부문 투자의 축소로 이어졌다(Tan 2023/10/01). 이는 결국 태국이 의존했던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예상보다 낮은 숫자의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제로 관광(zero tourism)”과 같은 중국계 상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을 이용하는 저가 관광에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Lertpusit 2023/07/05).

이러한 가운데 5월 총선 이후 총리 선출과 연정 구성의 지연은 태국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거 전부터 진보세력이 승리할 경우 내각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총리 선출이 야기할 혼란에 대한 경고는 있어 왔다. 반복되는 쿠데타와 이에 저항하는 거리 시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이미 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신감은 깊어진 상태였다(Pananond 2023/08/14). 이러한 상황에서 7월에 총리 선출에 대한 제2차 투표가 무산되면서 10월 1일로 예정되었던 2024년 예산 심사 및 확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Sriring and Ghoshal 2023/08/24).

2.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2023년 한해 태국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령화 사회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고령인구 빈곤화에 따른 정부 부담의 증대다.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20여년 사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

체 인구의 7%에서 14%로 증대되었다. 현재 태국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1,2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이 속도로 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5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Economist 2023/10/12).

공공기관이나 주요 산업에서의 정년퇴직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태국 사회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빈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Apisitniran 2023/09/18). 일본이나 한국처럼 경제 선진국에 이르지 못한 태국이나 베트남,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 보장과 공공보건의료제도가 미약해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가 위협받는다. 태국의 경우 정부가 노령인구에 제공하는 노령수당의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월간 600-1,000 바트 사이여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태국의 노령인구의 34%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기준 이하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WBG 2023/06/01: vi, xvi).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된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 저하 문제는 지금까지 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관광업과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치중한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보여준다. 태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업 산업에 치중한 이유는 다수의 해외 기업이 노동비 절감을 위해 전략적으로 태국을 선택하는 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수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서비스 수출이 전년 대비 66.1% 성장한 데 비해 상품 수출은 6.0% 감소했다는 데에서도 잘 보인다. 신규 주문의 감소로 앞으로의 생산량은 계속 하향세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Biswas 2023/09/29).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의 그간 누적된 비용 부담을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민간소비지출 또한 제조업과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S&P Global 2023/09/01).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변화 노력이 시급하지만 과연 태국 경제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특히 이미 누적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는 투자와 소비 성장 모두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 것이다(Biswas 2023/09/29).

수출지향적 제조업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눈여겨볼 만한 점이 바로 태국 국내총생산에서 9%를 차지하는 농업의 불안정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국가 중 태국은 8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WBG 2023/06/01: xviii).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태국은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강우량이 평소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량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농업, 특히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2023년 7월 인도가 쌀 수출을 다시 제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쌀 가격 폭등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2 수출국 태국에게 호재이자 악재로 작용했다(ADB 2023/09: 19, 36). 우기에 쌀을 재배하는 64%의 태국의 농민들은 쌀 생산량 저하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대되었지만 식품 가격 상승이 서민경제 악화에 기여할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BOT 2023/11/08: 23).

고령화 사회, 제조업과 수출량 저하, 농업의 불안정성이라는 산업 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노동시장인데, 이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2023년 태국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의 회복과 연계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였지만 관광업이 계속 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다수가 숙련 노동자이기

보다는 관련 직종에 특화된 노동자이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가 다수다. 이는 태국 경제가 주요산업의 변화를 피할 때 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과도 상통한다. 무엇보다 태국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산업이나 정보통신(IT: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NESDC 2023/05/15: 1).

노동시장의 한계는 빈부격차와 교육의 차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3년 6월 초 세계은행이 내놓은 태국의 공공세입지출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태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 것이 전반적인 태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지적한다(WBG 2023/06/01: xiv-xv).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상위 25%에 속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보다 61점이나 앞선다(OECD 2023).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 출신 학생은 학습 성취도가 낮아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직업학교에 들어가도 노동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어, 결국 단순직이나 단기직에 머물러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무엇보다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외국인이 바로 태국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약 1,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납치를 당하는데, 이중 태국인 사망자가 39명, 사상자가 19명,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54명의 태국인이 인질로 잡혔다(Al Jazeera 2023/11/30). 총 인질의 4분의 1이 태국인인 이유는 폭탄이 날아와도 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조차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가자지구 근처

에서 체류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무려 6,000여 명이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Kim and Yam 2023/11/24).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태국인 노동자의 83%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스라엘로 향한 이유는 태국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이스라엘에서 2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아야 빚도 갚고 자신과 가족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Turton and Regalado 2023/10/28).

3. 태국의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거와 현재

실제로 태국의 재정정책은 보수적인 편이어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를 매우 효율적으로 통제해왔다.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관대한 서민 지원 정책이나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제도와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투자가 비슷한 중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태국 사회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과 부조 제도가 매우 빈약해 고령인구의 빈곤화 문제가 앞으로 심화할 것이다(WBG 2023/06/01: vi).

이러한 상황에서 세타가 내놓은 빈곤층 해소를 위한 10,000 바트 디지털 월렛 정책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이미 태국은 팬데믹 시기 동안의 급격히 늘어난 정부지출로 공공부채가 총 GDP의 60% 수준으로 올랐다. 태국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바로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과세 기준으로 인해 세입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더 이상 공공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9년 태국 총 국민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낸 총 400만 명의 인구가 대부분 고정 임금을 받는 노동 계층이었고, 반면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징수

율을 낮게 책정해, 태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하다(WBG 2023/06/01: iii, viii-xi).

무엇보다 정부지출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 안정화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세타 정부는 연정 구성에서부터 총리 선출 과정에 있어서 태국 시민들로 하여금 그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2024년 정부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세타 내각이 민심 회복에 절대적인 경제 포퓰리즘을 보여줄 사업들의 착수 시기가 연기되어 새로운 정권은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ADB 2023/09: 125-126).

IV. 대외관계 및 한-태 관계

1. 새로운 동반자 찾기?

총선 관련 뉴스가 국내외 미디어를 거의 장악한 가운데 태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접근법에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2023년에 수교 190주년을 맞는 미국과 태국 관계는 더더욱 그러했다.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로 탄생한 정부를 쿠데타로 끌어내린 태국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왔다(Natalegawa 2023/10/04). 이에 찌티팻 폰캄 교수는 태국의 외교정책의 성격을 “헤징 전략이 기본인(hedging by default)” 정책이라고 정의했고, 빠라우트 정부 역시 이에 빗겨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Poonkham 2023). 미국과 태국의 합동군사훈련은 올해도 이루어졌지만, 심화하는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태국이 관망자적 위치를 고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군사 관계의 주축은

봉봉 마르코스가 이끄는 필리핀으로, 그리고 경제 관계의 주축은 팬데믹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이루고 중국을 떠난 해외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주를 한 베트남으로 옮겨갔다(Poonkham 2024: 93).

태국이 적극적으로 대외관계의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가운데 2023년 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첫째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태국 정부의 열렬한 구애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태국은 중국이 2022년 말부터 팬데믹 시기의 여행과 수출입 규제를 완화한 것을 태국 경제회복의 기회로 보았다. 예상하고 바랐던 만큼 2023년 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급격히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원래 기대했던 4백만 명에 한참 뒤 떨어진 340-3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Foreign Office 2023/12/13).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태국 정부는 무비자나 전자 비자 정책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다(Foreign Office 2023/12/07). 세타 내각이 출범한 직후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주석 등과의 만남으로 태국과 중국 간의 인적교류가 양국의 관계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 증대와도 관계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Foreign Office 2023/02/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2023/12/06).

이 가운데 태국이 2022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문화적 관계 강화를 위해 보인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태국의 외교 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그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한 것부터 태국에서 할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새로운 외교 파트너를 찾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Foreign Office 2023/06/07, 2023/12/14).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살만은 “비전 2030”

은 주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화와 동시에 여러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정상화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투자 촉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Mati and Rehman 2023/09/28).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간의 관계가 정상화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협력 관련해서 총 3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고, 양국 정상들의 공식 방문도 이루어졌다. 특히 신내각 구성 후 세타 타워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공공투자기금을 통해 태국 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Chongkittavorn 2023/06/20; Khaosod English 2023/10/21).

2. 한-태 관계 쟁점

한-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은 “인적교류”와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K-Pop 아이돌 해외 출신 멤버 중 태국 출신 아이돌의 영향력은 독보적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태국 팬들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2022년 9월 태국 영자지 더 네이션(The Nation) 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트윗하는 상위 10개국 중 1위를 한 한국 다음 2위가 태국이다(2022/09/06). 이에 태국 정부도 K-Pop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주목하고 있다. 세타의 신내각 역시 세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패딩탄 치나왓이 부위원장을 맡은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위원회를 구성하고 태국 콘텐츠 진흥원(THACCA: Thailand Creative Content Agency) 설립에 착수했다. 세타의 태국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한 정책은 영화, 미술, 도서, 음식, 음악축제, 관광, 체육, 패션 등 총 8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해외문화홍보원 2023/10/16).

태국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편으로는 한-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의미하는데, 2023년에는 한-태 관계의 양대 축인 인적교류와 문화 교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는 2023년이 태국과 한국 간의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1월에서 9월 사이 백만 명을 웃돌았지만 같은 시기 태국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6만 9천여 명에 그쳤다(해외문화홍보원 2023/10/16, Kasemsuk 2023/11/01). 특히 10월 말 태국의 트위터(현재 X)에서 #한국여행금지(#벤티아오까울리)와 #한국출입국관리소(#떠머까울리)가 해시태그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잠재된 반한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이어 한국을 찾은 다수의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하거나 범죄인에 가까운 취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삼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The Nation 2023/11/04).

한국 미디어가 태국의 한국 여행금지에 대한 반응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정부도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이 일어나자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내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태국의 입국 불허율이 높은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 비율이 높아서임을 인정했다(정상빈 2023/11/04).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은 총 203,448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8.2%의 규모다. 이들 중 단기 체류하는 태국인이 164,577명이고, 11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15만 7천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인 것이다(법무부 2023/11/23: 2, 27; 법무부 2023/11/03). 그러면서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

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 혹은 범죄인으로 보고 있음을 암시했다(법무부 2023/11/03).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인들에게 과도하게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입국심사 과정과 입국 거부는 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체류하는 혹은 체류했었던 태국인들이 당했던 일종의 인종차별적 태도와 멸시를 필연적으로 떠오르게 했고, 이는 한국 전반에 대한 반감 혹은 적대감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잠재된 반한감정은 “피너이(little ghost)”로 알려진 한국의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에서도 보인다.

2023년 초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7세의 태국인 노동자 분추 뿌라와세낭씨가 3월 4일 농장 근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분추씨가 축사 안에서 생활하면서 장기간 악취와 유독가스 노출이 되었고, 과한 노동으로 심장 계통에 이상이 생겨 과로사 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승욱 2023/03/08; 박태근 2023/03/07). 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분추씨가 발견될 수 있었던 건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던 분추씨가 연락이 없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그의 아내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 지인에게 연락을 해 남편의 행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해서였다고 한다. 경찰들과 함께 농장으로 가서 주검을 찾은 뒤 재차 농장주에게 물어보니 숨진 분추씨를 보고 충격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방에서는 분추씨의 여권과 돈이 발견되지 않았다(Chaisamritphon 2023/03/08; Loetchittham 2023/03/08).

분추씨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으로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BBC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95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중 264명의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한다. 나머지 270명은 병사하고 81명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총 695명의 태국인 사망자 중 86%에 이르는 602명이 불법 체류자였다(Buathong 2023/03/09).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 친족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겪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분추씨와 같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려진 태국인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태국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가 #BanKorea와 같은 운동으로 번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태 관계의 또 다른 축인 문화 교류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태국에서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과정을 무단 촬영한 20대 한국인 유튜버에 대한 사건에 대해 태국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 태국 대사관 역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나라 망신”이라는 다수의 반발에도 그 유튜버는 계속 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8월에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안동준 2023/08/21). 백종원 씨가 방콕의 숯불구이 집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한 데 대한 태국인들의 반발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방콕에서 가장 무까타를 잘 굽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이는 곧 태국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박혜인 2023/10/15).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태국인들은 한류에 열광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려 하지 않고 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교 65주년을 맞았지만 한-태 관계가 상호호혜적, 상호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과 한국이 주목한 일련의 사

건들이 이를 증명한다. 반면에 2023년 태국의 총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이 젊어지고 있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국의 청년 세대들은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이다. 수교 65주년이었던 2023년 말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도배한 해시태그가 #BanKorea 였다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V. 요약 및 결론

피타가 총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까오끌라이당은 여전히 제1당으로써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었던 개혁 안들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태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즉, 시간은 까오끌라이당과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진보세력의 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타에게는 총리 선출 과정과 연정 구성과정에서 받은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총리에 선출되자마자 세타는 경제부흥과 사회정의 구현, 그리고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를 약속했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물가를 낮추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결혼평등법안을 통과시키고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Chatuchinda 2023/08/22). 정치 경력이 거의 부재하고 총리 후보 시절 지지도도 탁신의 딸 패팅탄보다 낮았던 그의 내각이 살아남는 방법은 서민 경제회복이다.

하지만 현 태국의 경제 상황은 세타 내각의 희망 사항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견인해왔던 관광업과 민간소비지출이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

는데 대해 의문이 많다.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 숫자가 회복될 시기는 2024년 말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기대를 걸었던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기대만큼 태국을 찾지 않아 태국의 관광업 팬데믹 이전 수준과 같은 활성화는 요원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Languopin 2023/10/03). 디지털 월렛 정책과 교통비, 연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들은 한시적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이지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전 세계가 이미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들어간 만큼 태국 역시 일회성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투자 역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와 아시아의 경제 성장둔화는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깎아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태국 사회가 이전처럼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중진국으로서 주변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정치안정화와 기간산업 확장 발전,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국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태국의 대외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빈곤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NESDC 2023).

세타 정부는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하락한 국제사회에서의 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세타 내각의 출범이 총선의 표심에 반해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국 시민 다수의 저항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는 곧

세타 정부가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치 안정화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두 번째 걸림돌은 바로 태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총선 내내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이 왕실 모독죄 개정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정이 꾸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세타가 총리에 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국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타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은 국제사회에서의 태국의 위상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Foreign Office 2023/09/ 22).

마지막으로 태국의 외교관계, 특히 한-태 관계에 있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부터 백중원씨 논란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과 태국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이 한류를 통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학습 의지와 한국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무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간에 비롯된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al relations)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서영. 2023. “태국 활동가 네띠윗 ‘시민들, 민주화 받아들일 준비 돼 … 지치지 말고 싸워야.’” 『경향신문』 5월 10일.
- 박태근. 2023. “돼지농장서 숨진 태국인, 짐승우리만도 못한 곳에 살았다.” 『동아일보』 3월 7일.
- 박혜인. 2023. “백종원, 태국 음식·문화 무시 논란에 ‘현지 식사 방법 존중, 오해없길’ 해명.” 『MBC 뉴스』 10월 15일.
- 법무부. 2023.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11월 3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2023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 23일.
- 안동준. 2023. “‘나라 망신’ 태국서 ‘음란라이브’ 유튜버 구속… ‘수익금 몰수.’” 『YTN』 8월 21일.
- 이승욱. 2023. “사람이 돼지 똥오줌 방에서 10년 … 이주노동자 숨겨진 이곳.” 『한겨레』 3월 8일.
- 정상빈. 2023. “[서초동M본부] 태국 SNS 1위 “#한국방문금지” … 공항에서 태국인을 막는다고?” 『MBC 뉴스』 11월 4일.
- 해외문화홍보원. 2023. “[태국] 10월 주재국 문화·관광·체육·한류 동향보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10월 16일.
- Al Jazeera. 2023. “Relief as Thai hostages return home amid fears for those still held in Gaza.” *Al Jazeera*. November 30.
- Alderman, Petra. “Thailand’s Prospects for Democracy Blocked by the Junta-Appointed Senate.” *Australian Outlook*. July 18.
-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23. “Asian Development Outlook.” September.
- Apisitniran, Lamonphet. 2023. “Thai retirement age could be

- increased.” *Bangkok Post*. September 18.
- Bangprapa, Mongkol. 2022. “I’ll be back, says Thaksin, taking a dig at the PM.” *Bangkok Post*. July 21.
- Bank of Thailand (BOT). 2023. “Monetary Policy Report.” November 8.
- _____. 2023. “Press Release on the Economic and Monetary Conditions for September and the Third Quarter of 2023.” October 31.
- Biswas, Rajiv. 2023. “Thailand’s economy faces headwinds from manufacturing sector down.”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September 29.
- Buathong, Thanyaphon. 2023. “Phinoi: 7 pi khonnganthai naikaolilai siachiwit 695 khon pen rengnganphitkotmai 86% [Little ghost: 7 years, 695 Thai workers in South Korea died, 86% of whom were illegal workers].” *BBC Thai*. March 9.
- Chaisamritphon, Thotsapon. 2023. “Pharakit tamha ‘phinoi’ naikaolilai thi klaipenkhadi amphrangsop sathuankhuan [A mission to find a “little ghost” in South Korea turns into a shocking case of hiding a corpse].” *BBC Thai*. March 8.
- Chalermpanupap, Termsak. 2023. “An End to the Three Generals Era and a New Beginning for Thai Democracy.” *ISEAS Perspective* Issue 2023 no. 14 (February 27): 1-11.
- _____. 2023. “What’s Interesting about the Thai General Election is not Who Wins but What Comes After.” *ISEAS Perspective* Issue 2023 no. 24 (April 3): 1-11.
- _____. 2023. “Move Forward Party Has Won the Election, but May Lose the Premiership Race.” *ISEAS Perspective*. Issue 2023

no. 43 (May 25): 1-10.

- Chatuchinda, Sky. 2023. "Thailand's New Prime Minister: Srettha Thavasin."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August 22.
- Chongkittavorn, Kavi. 2023. "Thai-Saudi ties' wider strategic impact." *Bangkok Post*. June 20.
- Dollar, David. 2023. "US protectionism is a flawed strategy." *East Asia Forum*. June 4.
- Duangdee, Vijitra. 2023. "Thaksin's Return Set to Heat Up Politics." *VOA News*. July 26.
- Economist. 2023. "Poor Asian countries face an ageing crisis." October 12.
- 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2023. "Phonkanluaktang so.so. thuapai, 14 phrutsaphakhom 2023 [Election Results for MP in General, 14 May 2023]." <https://ectreport66.ect.go.th/overview> (검색일: 2023.12.04.)
- Foreign Office,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2023. "China and Thailand committed to improving bilateral ties" *News Room*. February 15.
- _____. 2023. "Thailand's Foreign Minister leads delegation to Saudi Arabia to strengthen relations." *News Room*. June 7.
- _____. 2023. "Thailand declares its intent to run for UNHRC in 2025-2027." *News Room*. September 22.
- _____. 2023. "Thailand and China to speed up talks about visa-free policy." *News Room*. December 7.
- _____. 2023. "Thailand aims to attract 8.5 million Chinese tourists in 2024." *News Room*. December 13.
- _____. 2023. "Forging Partnerships between Thailand and Saudi

- Arabia.” *News Room*. December 14.
- Head, Jonathan. 2023. “Royal prodigal son’s return stirs up Thailand.” *BBC*. August 9.
- Johjit, Krajangwit. 2023. “Move Forward Party to Submit 45 Bills for Amendments and New Laws.” *National News Bureau of Thailand*. May 18.
- Jory, Patrick. “Will Thailand’s conservatives finally make peace with Thaksin?” *Financial Review*. August 1.
- Kasemsuk, Narumon. 2023. “Thai tourists turn against South Korea.” *Bangkok Post*. November 1.
- Khaosod English. 2023. “Thailand Strengthens ties with Saudi Arabia in All Dimensions.” *Khaosod English*. October 21.
- Kim, Max and Marcus Yam. 2023. “A family in Thailand awaits word on hostage in Gaza.” *Los Angeles Times*. November 24.
- Languépin, Olivier. 2023. “World Bank trims Thai growth to 3.4% in 2023, 3.5% in 2024.” *Thailand Business News*. October 3.
- Lertpusit, Sivarin. 2023. “Time to Tackle Illegal Foreign Businesses in Thailand.” *Fulcrum*. July 5.
- Limthongkul, Sondhi. 2023. “Sondhitalk EP175: Thailand daenthongthieo ru dentaoritkappum [Thailand, a land of tourism or iron and bucket].” *Sondhi Talk*. February 3.
- Loetchittham, Wirot. 2023. “Saruphetkan bunchu rengnganthai siachiwit nai fammu kaolitai naichang kluakhuamphit khonsopthingnoenkhaio [Summary of the incident: Boonchu, a Thai worker, died in a South Korean pig farm. Employers fear guilt and dumped the corpse on a hill].” *The Standard*. March 8.

- Mati, Amine and Sidra Rehman. 2023. "Saudi Arabia's Economy Grows as it Diversifies." *IMF Country Focus*. September 2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Wang Yi Meets with Thai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npree Bahiddha-Nukara." *Top Stories*. December 6.
- Montesano, Michael J. 2023. "Pheu Thai's New Coalition Betrays the Faith of Voters." *Fulcrum*. August 29.
- Natalegawa, Andreyka. 2023. "Promise and Peril in the U.S.-Thailand Alli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4.
- 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 2023. "Thai Economic Performance in Q1 of 2023 and the Outlook for 2023." May 15.
- _____. 2023. "Thai Economic Performance in Q2 of 2023 and the Outlook for 2023." August 21.
- _____. 2023. "Thai Economic Performance in Q3 of 2023 and the Outlook for 2023-2024." November 20.
- _____. 2023. "Social Development Report."
- Online Reporters and News Agencies. 2024. "MFP ordered to drop plans to amend lese majeste law." *Bangkok Post*. January 3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 "PISA 2022 Results: Factsheets Thailand." December 5.
- Pananond, Pavida. 2023. "Business is out of patience with Thailand's political mess." *Nikkei Asia*. August 14.
- Poonkham, Jittipat. 2023. "Thailand's Foreign Policy: Hedging by

- Default?” *RSIS Commentary*. No. 38. March 15.
- _____. 2024. “Thailand’s Indo-Pacific Adrift? A Reluctant Re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Journal of Indo-Pacific Affairs* 7(1): 82-96.
- Prachatai. 2023. “‘chatuphon’ chiklawichan thang ‘prayut-thaksin’ maichennankanmuang ko penbepdoem [‘Jatuporn’ dares to criticize both ‘Prayut-Thaksin’, if not, politics will be the same as before].” *Prachatai*. January 21.
- Rattanataymee, Watcharin. 2023. “Changing Thailand: New Ideology, Old Politics.” *The Diplomat*. August 18.
- S&P Global. 2023. “S&P Global Thailand Manufacturing PMIT®: Manufacturing sector contracts amid fall in new orders.” *News Release*. September 1.
- Sirivunnabood, Puchada and Napon Jatusripitak. 2023. “Pheu Thai at the Crossroads: Navigating Thailand’s Senate-Driven Hung Parliament.” *Fulcrum*. August 11.
- Sriring, Orathai and Kitiphong Thaicaroen. 2023. “Thai Q2 GDP growth slows sharply amid weak global demand, govt cuts outlook.” *Reuters*. August 21.
- Sriring, Orathai and Devyot Ghoshal. 2023. “After limbo, Thailand’s new prime minister faces weakened economy.” *Reuters*. August 24.
- Tan, Clement. 2023. “World Bank downgrades developing East Asia growth forecast, weighted by a slowing China.” *CNBC News*. October 1.
- Thai PBS. 2023. “Phonkanluaktang 2566: kokoto. Triam prakat phonluaktang thangkan so. so. Kaoklai lua 151 khon [Election

Results 2023: The 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 prepares an official election result announcement. Kaoklai won 151 seats].” *Thai PBS* May 24.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328159> (검색일: 2023.11.26.)

The Nation. 2023. “Pheu Thai opts not to counter Jatuporn’s damaging allegations.” *The Nation*. January 28.

_____. 2022. “Thailand ranks second in the world for most Tweets about K-Content in 2022.” September 6.

_____. 2023. “Thai and Korean netizens clash after #BanKorea trends on X.” November 4.

_____. 2023. “Prayut Chan-o-cha appointed as a privy councilor.” November 30.

The Standard. 2023. “Phonkanluaktang so.so. 500 thinang [Election Results for 500 MP Seats].” *The Standard*. <https://election2566.thestandard.co/> (검색일: 2023.12.04.)

Tonsakulrungruang, Khemthong. 2023. “A coup by any other name.” *New Mandala*. August 7.

Turton, Shaun and Francesca Regalado. 2023. “How Thai workers became integral to Israel’s economy.” *Financial Times*. October 28.

Watcharasakwej, Wilawan and Rebecca Tan. 2023. “Thailand just chose a prime minister. He’s not the one people voted for.” *Washington Post*. August 22.

Wee, Sui-Lee and Muktita Suhartono. 2023. “Thai Parliament Picks Real Estate Mogul as Next Prime Minister.” *New York Times*. August 21.

Wheeler, Matthew. 2023. “Thai Establishment Thwarts Popular Will

- with Post-election Moves.” *International Crisis Group*. July 31.
- White, Edward and Mercedes Ruehl. 2023. “Asia faces one of worst economic outlooks in half a century, World Bank warns.” *Financial Times*. October 2.
- World Bank Group (WBG). 2023. “Thailand Public Revenue and Spending Assessment: Promoting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Executive Summary.” June 1.
- _____. 2023. “Thailand Economic Monitor. Building a Resilient Future: Coping with Droughts and Floods.” June 28.
- Yarrow, Richard. 2023. “Thailand’s Exposure to Northeast Asia’s Slowdowns.” *Fulcrum*. October 30.

(2023.12.28. 투고, 2024.1.25. 심사, 2024.2.8.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23: Structural Problems to Overcome to Move Forward*

Sinae HYUN
(Sogang University)

In the 2023 general election, the Move Forward Party led by a newer and younger political generation won first place instead of the Pheu Thai Party which has been the biggest opposition party since 2011. Nevertheless, the Move Forward Party was blocked from bringing its candidate to the premiership and forced to pass the baton to the Pheu Thai Party. The latter broke the promise as predicted by many political pundits before the election and creat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conservatives including the military. The new cabinet under Prime Minister Srettha Thavisin embarked on a long, unforeseeable journey after betraying the majorities that had long suspected whether the Pheu Thai Party and its CEO-like leaders could bring about long-term stability to Thai politics and society.

Thai economy recovered to the pre-pandemic level at a much slower pace than its neighbors. The slow recovery however exposed persist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Thai economy that have been mainly deriv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1093243).

from the failure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unimproved quality of education, which had been the key factor to the weak labor competency. Besides, climate change and the rapidly aging society will add other obstacles to the Srettha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much anticipated economic growth in the coming years.

Repeated coups and consequent instabilities have far affected international trust in Thailand for several decades. Yet, the Thai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its stance and position against the dramatically worsening US-China relations. Meanwhile, Thailand has been enthusiastically cooperating with Saudi Arabia after the 32-year-long severance as if the latter would lighten the burden of los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wer for Thailand. Although Thailand and South Korea celebrated the Sixty-fif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3, several debates and unpleasant incidents have dampened the spirits to move forward to mutually beneficial and friendly relations.

Key Words: general election, Thaksin Shinawatra, everyday politics, structural problems, aging society,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audi Arabia, Korea-Thailand relations